

# 오장환 시의 장소성 연구\*

윤 수 하 (전북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서울'의 근대화와 내적 갈등 |
| 2. 장소애의 대상 '고향'의 상실 | 4. 결론               |

## 국문초록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문 지리학은 근대 사회이론의 비판과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장소는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자,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다. 또 존재의 조건을 형성시키고 의미를 각인시키기도 한다. 장소는 삶에서 일정한 체험을 하고 있는 주체에게 한정된 의미로 형성되며 오랜 시간 꾸준한 감정교류를 통해 깊은 의미를 얻을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오장환의 시에서 특정한 장소를 통해 느끼게 되는 장소애와 장소혐오를 비롯한 장소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간과 장소성 이론을 검토하고 오장환 시의 장소애와 장소혐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장환 시에서 장소애의 대상은 고향으로 안정감을 부르는 원형적 공간이다. 오장환 시에 나타나는 장소 상실은 <향수>나 <북방의 길>과 같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소성 이론을 적용한 다른 시들과 오장환 시가 다른 양상을 띠는 부분은 장소에 대한 혐오를 갖는 시들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장환 시에서 장소혐오를 느끼는 대상을 '도시'로 보고 오장환 시에 나타나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014S1A5B5A07042494]

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과 야만성을 탐색했다. 1930년대 활동했던 많은 시인들의 작품들 중에서 특히 오장환의 시는 다양한 변모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오장환의 시 이외에 장시<수부>나 시집 『붉은 기』의 작품들도 장소감을 연구하는 적절한 텍스트라고 보며 미흡한 부분은 다음 연구로 미룬다.

주제어: 공간, 장소, 장소성, 장소애, 장소혐오

## 1. 서론

오장환은 1933년 11월, 16세의 나이에 <목욕간>이라는 시로 등단해 19년 동안 6권의 시집을 남겼다. 오장환의 시세계에 대해 김기림은 “길거리에 버려진 조개껍질을 귀에 대고도 바다의 파도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환상과 직관의 시인”<sup>1)</sup>이라 하였다. 또 서정주는 오장환의 시적 재능을 일컬어 ‘시의 황제’<sup>2)</sup>라 하였다. 서정주, 이용악, 이육사, 윤근강 등과 『시인부락』, 『낭만』, 『자오선』 등 동인 활동을 했으며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월북시인인 오장환의 시는 1988년 해금된 이후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어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해금되기 이전의 평가는 김기림, 이봉구, 민태규, 김광균, 김동석 등에 의해 이뤄졌다.<sup>3)</sup> 이 논의 중 김동석의 논의는

1) 김기림, 『『성벽』을 읽고』, 《조선일보》, 1937. 9. 18일자.

2) 서정주, 『서정주 문학전집』 제5권, 일지사, 1972. 117면.

3) 김기림, 『『성벽』을 읽고-오장환씨의 시집』,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이봉구, 『성벽시절의 장환』,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2.

민태규, 『시집 『헌사』를 읽고』, 김학동 편,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김광균, 『오장환 시집 『헌사』』, 김학동 편, 위의 책.

다른 것에 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김동석은 오장환을 ‘조선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sup>4)</sup>

해금 이후 오장환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장환의 시세계가 변모하는 과정을 다룬 연구이다.<sup>5)</sup> 먼저, 최두석의 논의는 리얼리즘 시에 대한 논의가 학술적이기보다는 비평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임화, 오장환, 백석, 이용악 등을 포괄해 한국 현대리얼리즘 시로서 논했다. 이필규는 오장환의 시를 변모과정별로 구분하는 한편 시집을 연대별로 분류해 고찰했다. 또 이필규는 이전 논의들이 간과한 장시 <전쟁>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둘째, 전기적 연구와 문화사회학적 방법으로 살펴본 연구를 들 수 있다.<sup>6)</sup> 김학동은 오장환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오장환의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대응해 시세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오장환의 생애를 집중 조명하고 원전을 밝혀 이후 연구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두석은 오장환의 미 수록된 시편을 포함해 네 권의 시집을 2권으로 망라해 발간했다. 김재용은 오장환 시의 특성을 리얼리즘으로 규정하

---

김동석, 『탁류의 음악-오장환론』, 『김동석 평론집』, 서음출판사, 1989.

4) 김동석, 위의 책, 57-64면.

5) 최두석,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 전집 2』, 창작과 비평사, 1989.

성기가, 『오장환 시에 나타난 고향의 문제』, 『경남어문논집』, 제3집, 경남대, 1990.

이필규, 『오장환 시의 변모과정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994.

김용직, 『열정과 행동-오장환론』,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0.

김영란, 『오장환 시 연구』, 경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9.

김희경, 『오장환 시 연구-시의식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09.

6) 김학동, 『오장환 시 연구』, 시문학사, 1990.

\_\_\_\_\_,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김재용,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2.

도중환, 『오장환 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6.

최두석, 『오장환 전집 1』, 창작과 비평사, 1997.

\_\_\_\_\_, 『오장환 전집 2』, 창작과 비평사, 1999.

고 <수부> 및 해방 이후에 창작된 시들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오장환의 마지막 시집인 『붉은 기』를 발굴해 기존의 논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재용은 오장환을 ‘휴전선의 시인’으로 칭하면서 <수부>를 통해 식민지 자본주의와 근대 문명의 내파를 겪는 오장환의 의식 세계를 조망하고 있다.<sup>7)</sup> 도종환은 오장환이 등단하기 전에 습작한 동시부터 해방 이후 시집인 『붉은 기』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기적 방법과 문화 사회학적으로 검토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놓친 오장환 생애의 전반적인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셋째, 오장환의 시를 내적인 구조와 형식을 논의한 연구들이다.<sup>8)</sup> 박현수는 오장환 시 <전쟁>을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진행한 논의였고,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영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 시 전편을 35개의 시퀀스로 구분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 중 시에 나타난 내면적 공간 구조에 주목한 연구는 김희경과 백수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희경은 문·항구·길이라는 의식 공간에 주목해 시의식의 변이과정을 탐색했다. 오장환 시의 내적인 공간과 외적인 공간을 구분해 폐쇄와 개방 등 심리적 기재를 분석했다.<sup>9)</sup> 특히 의식 공간에 대한 연구는 인문지리학적인 측면에서 공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며 오장환의 내적 체험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상동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오장환의 시의 공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10)</sup> 이 연구들은 공간과 연관시켜 진행되는 시 연구가 단순한 체험에 대

7) 김재용, 위의 책, 631-663면.

8) 이상옥, 『오장환 시 연구-담화체계를 중심으로』,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3.

박현수, 『오장환의 장시 ‘전쟁’연구 1』, 『세종어문연구』 제10집, 세종어문학회, 1997.

박현수, 『오장환의 장시 ‘전쟁’연구 2』, 『세종어문연구』 제11집, 세종어문학회, 1998.

백수인, 『오장환 시의 공간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1집, 1991.

백수인, 『오장환 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4.

김희경, 『오장환 시의 공간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1집, 2008.

김은정, 『오장환 시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2010.

9) 백수인, 앞의 논문, 383-397면.

10) 최만중, 『김소월 시에 있어서 ‘공간에’의 현상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한 형상화가 아닌 내밀한 의미체계를 내포하며 시세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했다.<sup>11)</sup> 장소는 삶에서 일정한 체험을 하고 있는 주체에게 한정된 의미로 형성되며 오랜 시간 꾸준한 감정교류를 통해 깊은 의미를 얻을 수도 있다.<sup>12)</sup> 장소는 실존의 근원인 동시에 외부세계와 접촉하며 관계를 맺는 수단이므로 장소의 변형은 그 장소를 바탕으로 살아 온 주체에게 상실의 아픔과 장소와 실존이 통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형성한다. 오장환의 시 속에서 묘사된 변모하는 장소의 형태는 근대화의 주체이자 장소의 변형을 이끌어낸 피식민지 주체의 통합하지 못하는 실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존재는 살아왔던 터전을 상실한 후에도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과 무관해도 기억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장소는 현존하지 않는 과거 속에 마음 둘 곳이 된다. 인간은 삶 속에서 익숙한 장소와 낯선 장소를 확인하고 관계 맺기 때문에 장소는 실존과 통합되어 있다. 1930년대 근대적 도시의 형성과 발전은 피식민 주체의 심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도시와 함께 발전된 변화된 환경의 결과물이다.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도시화되어 산업 발전과 문명을 형성하는 장소는 식민지 상태라는 면에서 다른 장소와 변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오장환 시에 드러난 익숙한 장소의 상실과 상실에 대한 내면

---

2001.

송명희, 『이상화 시의 공간과 공간상실』, 『한국시학연구』 23호, 2008.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공간』, 소명출판, 1999.

이혜원, 『김소월의 공간의 시학』,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김민숙, 『백석 시에 나타난 공간성 연구』, 『비평문학』 제46호, 2011.

11) Heidegger,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58. 19면.

12) Yi-Fu Tuan, 심승희 역, 『공간과 공간』, 대운, 1999. 44면.

심리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 타인에게 지배된 상태에서 낮설게 변형되는 장소에 대한 내면화 과정과 내면화된 장소 또는 공간이 시 속에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 그러한 과정이 사유의 근간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장소의 의미와 장소성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문 지리학은 근대 사회이론의 비판과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인문 지리학은<sup>13)</sup> 기존 지리학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과학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험의 세계를 증시한다. 인간과 생활 영역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주목하고 지리적 환경과 관련 있는 인간의 다양한 의식 변화를 이해하며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학문이다. 지금까지의 지리학이 사실 중심적이었던 반면, 인문 지리학의 공간 개념은 주관적이고 질적이며 위상 수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문 지리학 분야에서 공간을 보는 관점이 그러한 것은 지리적 세계를 주관적 의미 연관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sup>14)</sup>

장소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주관성으로 결정된다. 지리학에서 공간(space)와 장소(place)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공간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공간에 의미가 채워지면 장소로 변화된다.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에 의해 쌓인 의미 층위가 두텁다. 또 공간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비해 장소는 그

13)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된 인간주의 지리학은 논리 실증주의적인 공간지리학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의 가치와 자유 등의 문제를 지리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적 연구 경향이다. 최병두 외, 『인문지리학 개론』, 한울, 2008, 29면, 진중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76-81면.

14) Edward Ra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성』, 논형, 2005, 104면.

부분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장소에 담긴 감성적, 미학적, 상징적 호소를 이해의 방법으로 삼으며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sup>15)</sup> 존재의 체험에 따라 미지의 공간은 의미 있는 장소로 전환된다.

장소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짓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공간은 건축되어진 것이지만 일정한 장소로 변화하며 개별적 역할이 주어진다. 시공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갖는 장소는 그에 소속된 인간의 가치관이나 정서 또는 사고에 따라 고유성을 갖기 때문에 소속된 인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장소에서의 경험은 특정 장소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인간과 유대를 갖는 장소의 존망은 장소에 소속된 인간의 정서 상태와도 연결된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인간의 경험을 수준에 따라 신체의 운동 범위에서부터 방, 집, 근린, 마을, 도시, 국가, 대륙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장소애(topophilia)'는<sup>16)</sup> 존재가 물질적 환경과 맺는 모든 정서적 유대, 특히 장소 및 배경과 맺는 정서적 결합을 의미한다. 특정 공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랑이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움직임이며, 개방, 자유이자 위협이다. 반면 장소는 정지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인식처이자 안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의 중심이다. 인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낯선 공간은 구체적 장소가 된다. 어떤 미지의 지역이 친밀하게 다가옴으로써 비로소 그 지역에 대한 느낌, 즉 장소감(sence of place)을 갖게 된다.<sup>17)</sup>

15) 신성환, 『인문지리학의 시선에서 본 새로운 도시 인식과 상상력』—장소성의 훼손에 대한 최근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45집, 2010, 203면.

16) 장소애(topophilia)는 이-푸 투안이 처음 쓴 용어이다. '토포스(topos)'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토포스는 고대 문법가들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서 어느 문맥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진부한 비유나 표현 또는 암시적인 상투 어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즐거운 장소는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쾌적함을 주는 장소를 가리킨다.

17) Yi-Fu Tuan, 앞의 책, 6-8면.

시 속에 형상화된 장소의 의미는 특정 시어의 반복, 대상에 대한 감정 토로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변화하는 장소에 대한 집착이나 사랑, 증오 또는 양가적 감정의 변화를 통해 시인의 사상적 토대나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시대적 상황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사회의 가치 척도 변화도 드러난다. 오장환의 시 속의 장소는 내면의 변모를 의미한다. 장소는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자, 삶의 터전이다. 존재의 조건을 형성시키고 의미를 각인시키는 수단이 된다. 오장환의 시 속에 일정한 체험으로 자리 잡은 장소는 꾸준한 감정 교류를 통해 자존감과 사상의 지표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 3. 장소애의 대상 ‘고향’의 상실

장소에 대한 반응은 문학 속에 정서적 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오장환 시의 체험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장소는 구체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장소화 되는 것은 의미 없이 배치된 공간에 개인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형성하는 일이다. 시 속에 등장하는 배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장소와 시인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애착은 특정한 장소를 세부적으로 알아가면서 형성되므로 장소애와 장소혐오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껏 우리 문학과 장소성을 연구한 논의는 주로 장소애와 결부된 연구에 치우쳤다.<sup>18)</sup> 그것은 장소애를 드러낸 시들에 국한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장환의 시에는 장소애 뿐 아니라 장소 혐오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고향이라는 근원적 뿌리에 대한 장소애는 물론이며 고향을 등진 유랑자가 겪는 장소상실의 감정, 그리고 퇴색되어 가는 장소에 대한 장소혐오의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18) 최만중, 박태일, 이혜원, 김민숙의 논의는 장소애에 대한 것이고 송명희의 논의만이 장소상실에 대해 다뤘으나 장소혐오를 다룬 논의는 없었다.

### 3.1. '고향'과 강 건너의 장소

장소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와 맞닿아 있다. 개인이 자연 환경을 대할 때 자연 조건과 원형적 상징체계는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자연과 동일성을 형성하는 장소나 그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곳이 장소애를 불러일으킨다. 집이나 고향과 같은 원형적 공간은 안정감을 느끼는 보편적인 장소이다.

모닥불. 모닥불. 은은히 붉은 속. 차차 흙 밑에는 냉기가 솟고. 재 되어 스러지는 태태. 강 건너 바람이, 날 바보로 만들었구려. 파락호 호주胡酒에 운다. 석유불 끄벽이는 토담방 북데기 간 토담방 속에. 뽕뽕이는 갯난애. 갯난애 배꼽줄 산모의 미련을 끊어. 모닥불. 모닥불 속에. 은은히 사그라진다.

눈 녹아. 지평 끝, 쫓아오는 미더운 숨결. 아직도 어두운 영창의 문풍지를 울리며. 쭈렁한 논두렁. 종다리 돌을 던지며. 고운 흙. 새 풀이 나온다. 보리. 보리. 들가에 흩어진 농군들. 봄밀. 봄밀이. 솟쳐오른다. 졸.졸.졸. 하늘 있는 곳 구름 이는 곳. 샘물이 흐르는 소리.

해마다, 해마다. 강을 건너며. 강을 건너며. 골짜기 따라 오르며. 며칠씩, 며칠씩 불을 싸질러. 밤하늘 끄실렀었다. 풀 먹는 사슴이. 이슬 마시는 산토끼. 모조리 쫓고. 조상은 따비 이루고, 무덤 만들고. 시꺼먼 뗏장 위에 산나물 뜯고. 이 뒤에서 이 뒤에서 봄이 왔었다.

어찌사 어찌사 울을 것이냐. 예성강이래도 좋다. 성천강 이래도 좋다. 두꺼운 얼음장 밑에 숨어 흐르는 우리네 슬픔을 건너, 보았느니 보았느니. 말없이 흐르는 모든 강물에. 송화. 송화가루가 흥건히 떠나려가는 것. 십일평야十日平野에 뿌리를 박고 어찌사 울을 것이냐. 꽃가루여. 꽃수염이여.

- <강을 건너>

이 시는 고향의 내부에 흡수되어 공동체의 일부가 된 장소감이 표출되어 있는 시이다. 시의 화자는 장소의 내부에서 주체의 소속감을 갖고 진정한 장

소감을 느끼고 있다. 이 시의 독특한 점은 짧은 단어로 이루어지는 단절되는 어투에서 찾을 수 있다. 시선은 배치하는 대상물을 통해 카메라의 초점이 모이듯 장소로 이끌린다. 첫 연에서 시에 나타나는 장소는 세 곳이다. 시선은 갓난애의 태를 태우고 있는 장소에서 갓난애가 울고 있는 토담방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모닥불로 옮겨진다.

시의 화자는 장소의 내부에서 모닥불 속에 사그라지는 ‘갓난애’의 ‘태胎’를 본다. ‘갓난애’로 인해 생명이 회귀되고 고향이라는 장소가 영원히 종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탯줄을 끊어 태우는 행위는 어머니의 신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또 다른 신체 공간을 만들어냄을 의미한다. 시의 화자에게 ‘고향’이라는 장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또 전통을 상징하는 ‘조상’이라는 대상이 사멸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공동체적 공간이다. ‘모닥불’은 ‘산모’의 신체가 새로운 신체의 공간인 ‘갓난애’와의 연결선을 끊고 신체를 연결했던 매듭인 탯줄을 흡수하는 새로운 공간이다. ‘모닥불’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산모’와 ‘갓난애’를 연결하는 탯줄을 흡수하고 소멸시킴으로써 신체라는 공간을 분리시킨다. 그것은 ‘갓난애’가 ‘산모’와 분리되면서 스스로를 산출해낸 장소인 산모의 자궁에 대한 장소감을 갖고 하나의 개체로서 자신을 산출에 낸 장소에 대한 장소애를 갖도록 만드는 매개체이다. 첫 연에서 실질적으로 이동되는 장소가 모닥불을 태우는 장소와 토담방이라면 숨겨진 장소는 ‘강을 건너’이다. 강 건너 장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바람은 시의 화자를 ‘바보’로 만든 대상이다. 그래서 시의 화자는 스스로를 ‘파락호’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한 시선으로 이 시의 화자가 장소감을 경험하게끔 하는 대상은 ‘봄’이다. ‘고향’은 ‘산모’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잉태해 낸다. 또 영원이 거듭되는 탄생의 시간인 ‘봄’과 함께 생명을 상징하는 대상물들이 활동한다. 눈이 녹고 대지가 물어쉬는 숨결은 영창의 문풍지를 울린다. ‘논두렁’은 그래서 ‘쭈렁’이게 된다. ‘종다리’와 ‘고운 흙’, ‘새 풀’, ‘보리’, ‘농군들’, ‘봄 밀’ ‘쌈물’이 고향의 장소감을 표출하는 대상물이다. ‘바람’은 유랑의 근원이 되듯 ‘파락호’와 같은 시의 화자를 불러내고 꽃가루를 실어 나르고 산짐승의 우는 소

리를 불러내기도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고향’이라는 장소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시의 화자가 진정한 장소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3연의 ‘고향’이라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부분이다. 땃줄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연결하는 매듭인 ‘모든 강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봄’의 부산물인 ‘꽃가루’와 ‘꽃수염’을 실어 나른다. 그래서 ‘고향’은 시의 화자에게 공동체적 일체감을 주며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시의 화자는 장소를 이동하며 ‘불’을 ‘짜질러’ 밤하늘을 ‘끄슬’르는 행위를 한다. 불을 지르는 행위는 대지에 남아있는 기존의 흔적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끔 ‘고향’의 대지를 비우는 행위이다. 그래서 시의 화자는 그러한 행위를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봄’이 오게끔 만드는 행위라고 믿고 있다. 그러한 행위로 인해 ‘봄’이 찾아오고 두꺼운 ‘얼음장’ 밑에 숨어 흐르는 ‘우리네 슬픔’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두꺼운 얼음장’을 만들어 내는 봄이 오고 꽃가루가 떠나려가는 것을 막고 있다. 얼음이 녹고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은 얼어버린 슬픔이 녹아내리는 것으로 ‘고향’이라는 장소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봄이 왔음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시의 화자가 장소애를 갖고 있는 대상인 ‘고향’은 ‘슬픔’이라는 장소감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이다. 고향에서 생성되는 대상물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슬픔’ 속에서 생성하고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나려 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쟁내미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에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띄우는 소리, 누룩이 뜬 내음새……

— <고향 앞에서>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여서 여러 시인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잃은 안타까운 감정을 토로했고 그리운 고향을 형상화하는 시들을 발표했다. ‘고향’이라는 장소에 의미를 두고 형상화함으로써 실존적인 대상으로 형성되고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고향에 대한 시들의 묘사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다.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역시 고향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고향’이라는 장소는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곳이며 친밀한 장소인 집이 모여 확장된 곳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난 땅과 조상이 물려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고향’에 대한 애착과 안정감을 터득한다.<sup>19)</sup> ‘고향’이라는 장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고향’이 지닌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경험은 장소감을 형성하고 장소 외부에서도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진정한 장소성을 획득하게 만든다. 장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제 생활

19)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역락, 2008. 13면.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적인 경험의 현상은 실재적인 요소와 사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sup>20)</sup> ‘흙이 풀리는 내음새’는 고향을 떠올리는 후각적인 요소로 계절과 지형을 유추할 수 있다. 장소 체험에 있어 감각적 요소를 의인화하는 것은 장소에 대해 구체화하며 동시에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흙이 풀리는 냄새를 신고 불어오는 ‘강바람’은 겨우내 산에 갇혀 있던 산짐승을 불러낸다. 산짐승이 산에서 내려오는 형상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청각적인 요소인 ‘우는 소릴’ 표출한다. 채 녹지 못한 얼음장은 감정이 있는 대상인양 ‘울멍울멍’ 떠내려가는데 대상물에 대한 인격화는 대상과의 일체감을 표출한다.

‘나룻가’는 시의 화자가 방황하다가 하루를 보낸 장소이다. ‘나룻가’는 떠나는 장소이지만 시의 화자는 쉽사리 떠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것은 삶의 터전이었던 장소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나룻가’를 오가는 행인들은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입장으로 동료애를 갖고 있어서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기도 한다. ‘나룻가’를 오가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감정이 있으며 ‘강을 건너’ 장소와 강을 건너기 전 장소를 잇는 매개체적인 장소이다. ‘나룻가’는 어느 공간에도 소속되지 못한 입장의 행인들이 처지를 이해하며 손을 잡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시의 화자는 비슷한 처지의 행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장소애를 갖는다.

이 시에서 행인들과 공유하는 또 다른 장소가 ‘주막’이다. 주막은 장소애를 갖는 ‘고향’에 대한 공감의 형성된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양귀비 꽃여다 놓고’<sup>21)</sup> 과거의 이야기에 눈물짓는 주인집 늙은이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상태이다. ‘주인집 늙은이’ 또한 시의 화자와 ‘고향’이라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눈물지을 수 있는 온정을 지니고 있다.

‘잔내비’가 우는 산기슭에는 ‘조상’이 묻혀 있다. 이미 백골도 남아있지 않을 대상을 ‘잠자고’ 있는 상태로 표현하는 것은 조상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20) Edward Ralph, 앞의 책, 287-288면.

21) 양귀비 잎이나 줄기 등을 끓여 이질이나 복통에 사용했음.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상’은 고향을 지키는 존재이기도 하고 전통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의 화자는 고향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장꾼’들에게 고향의 존망을 묻는다. 그것은 시의 화자가 고향에 들어설 수 없는 상태이고 고향에 대한 애착은 있으나 타의에 의해 상실된 상태임을 뜻한다. 시의 말미에서도 역시 후각적인 요소로 고향을 그려내고 있다.

시의 화자의 ‘고향’에 대한 애착은 장소에 대한 공감각적 요소에서 드러난다. 또 의인화된 대상에 대한 표현에서 장소애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 화자가 장소애의 대상인 고향의 안부를 타인에게 묻는 상황에서 내면적 공간에는 장소애의 대상이 자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공간이 상실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고향에 대한 거리는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널 수 없는 시의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 드러난다. 시의 화자의 내면에는 고향이 뿌리내려져 있다. 고향이라는 공동체는 행인이나 주인집 늙은이, 무덤 속의 조상을 통해 연결되고 있으나 장소에 대한 진정한 내부성을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장소에 대한 상실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고향’의 상실과 유랑

시의 화자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장소인 ‘고향’은 기억 속에 자리잡아 돌아가고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의식 속에 남아 있어 일정한 장소로 회귀시킨다. 그러나 시의 화자는 장소 상실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한 상태는 시의 화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고향’이라는 장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상처로 작용한다.

어메야! 은—세상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단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메! 지금의 내가 있는 곳은 광둥인廣東人이 살고 다니는 층층한 밀항선. 검고 비린 바다 위에 휘어—한 각등角燈이 비치울 때면, 나는 함부로 술과 싸움과 도박을 하다가 어메가 그리워 어둑어둑한 부두로 나오기도 하였다. 어메야! 아는가 어두운 밤에 부두를 헤매이는 사람들. 암말도 않고 고향, 고향을 그리우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 깊은 상처를 숨겨가지고……띠엄, 띠엄이, 헤어져 있는 사

랍들.

- <향수> 中

장소에 대한 소속감은 장소에 대한 일체감과 연결된다. 장소의 본질은 사물, 행위, 의미 등이 어우러진 내부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장소의 경험이 내부에 뿌리내릴 때 장소와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소가 공간과 변별되는 점이다. 장소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내부적 요인이다. 그러한 장소가 타의에 의해 파괴되거나 이항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존재는 장소에 대해 심리적인 위안과 안정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장소 상실로 이어지고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한다. 진정한 장소감은 내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장소를 통한 정체성은 단순한 소속감이 아닌 장소에의 뿌리내림(rootedness)을 통한 존재의 안정감과 연관성이 있다.<sup>22)</sup>

‘고향’이라는 장소와 분리시키는 대상물은 ‘밀항선’이다. 이 시에서 ‘고향’의 일체감을 상징하는 대상은 ‘어메’이다. ‘어메’는 고향과 동일시되며 고향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는 대상이다. 시의 화자는 이미 떠난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경험할 수 없다.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시의 화자는 분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장소와 연결시켜 주는 장소 정체성의 대상인 ‘어메’를 떠올린다. ‘고향’이라는 장소는 삶의 터전이자,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위안을 주는 곳이다. 상실된 장소에 대한 그리움은 떠나는 장소인 ‘밀항선’ 안에서 경험한다. ‘밀항선’은 일반적인 배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밀항선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밀항을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거칠고 혼란스러우며 격정적이다. 시의 화자는 장소상실을 경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술과 싸움과 도박’을 함부로 일삼는 상태가 된다. 장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잃어버린 시의 화자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그러다가 ‘고향’과 동일시되는 대상인 ‘어메’를 떠올리며 소속감과 일체감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

22) 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2007. 68면에서 재인용.

을 겪는다.

‘부두’는 시의 화자와 같은 상황인 실향의 상태에 놓인 대상들이 장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해매는 장소이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암말’도 안하고 부둣가를 해매고 다니고 있다. 낮이 아닌 밤에 은밀하게 승선할 배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볼 때, 그들 역시 밀항을 원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시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흡사한 대상들의 그리움을 이해하고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로 인해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상실감이 공동체적인 감정으로 이입되고 있다.

눈 덮인 철로는 더욱이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 듯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창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친다.

- <북방北方的 길>

이 시는 실향의 상실감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신의 존재의 뿌리이자 위안의 장소였던 ‘집’과 ‘고향’을 떠나 낯선 ‘북방’으로 떠나는 길은 험난하고 위협적이다. 그래서 춥고 험난한 미래에는 ‘눈’이 덮여 있고 그 장소로 놓인 ‘철로’조차 싸늘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운 계절은 위협적이다. 주식이 해결되지 못할 위협이 있지만 포근하고 안락한 장소인 ‘고향’을 뒤로 하고 선택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실향민의 처지를 그려내고 있는 시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농군’의 신분이었던 실향민의 몸에는 ‘고향’이라는 장소의 흔적인 ‘송아지의 냄새’가 배어 있다. 냄새의 근원이 ‘소가 아닌 ‘송아지’로 표현되었으므로 인해 어린 생명을 떼어놓고 떠난 실향민의 고통이 배가 된다. 그러한 고통과 절망은 ‘힘없이 웃으면서’ 말하는 농군의 태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급작스럽게 돌변한 상황에 대해 적응하기 힘든 아이는 ‘철마구리’<sup>23)</sup> 울 듯

울어댄다. 고통을 견디기 힘든 아이는 결국 유리창을 쥐어뜯으며 우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대상에게 ‘고향’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고통을 감내하는 ‘농군’은 힘없이 웃는 것으로 상황에 대해 대처하지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겨운 대상인 ‘어린애’는 울면서 ‘고향’이라는 궁극적인 장소를 지워버리는 차창을 쥐어뜯고 몸부림치는 극적인 상황을 벌인다.

위 두 시에서는 고향이라는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대상을 타의에 의해 상실하게 되며 겪는 상실감을 그려내고 있다. 고향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장소로서 고향의 상실은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를 잃는 것과 동일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시들이다.

## 4. ‘서울’의 근대화와 내적 갈등

### 4.1. 도시 공간에 대한 연민과 장소애

렐프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획일화와 표준화 등으로 인해 장소감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았다. 렐프의 장소 상실 또는 무장소성의 힘은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타자 지향적 장소, 도시 개발을 통한 획일화, 획일적인 서브토피아, 전쟁 및 개발에 의한 장소 파괴, 장소의 일시적 불안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24)</sup> 장소의 본질은 내부 경험에 있으며 무장소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장소를 받아들이는 개인에 있다. 장소감을 획득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과거에 머물던 곳을 그리워하면서 갖게 되는 과거 장소에 대한

23) 청개구리의 고치, 나무에 매달린 형태를 하고 겨울을 건넌다. 이 시의 철마구리의 울음은 자연스럽게 봄에 깨어나 울어야 할 청개구리가 급작스러운 공격적 상황으로 겨울에 깨서 우는 것을 비유한 것임.

24) Edward Ralph, 앞의 책, 177-179면.

감정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 장소감으로 실존 장소에 대해 점차적으로 갖게 되는 장소감이다.

너는 보았느냐  
마차밭에 채어 죽은 마차꾼을,  
그리고  
장안 한복판에  
마육馬肉을 싣고 가는 마차말같이  
인육人肉을 싣고 가는 폭력단을—

— <너는 보았느냐> 中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도시는 혐오스러운 물질로 가득 차게 된다. 도시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교통사고 사건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살육과 겹쳐 현상된다. 병이 깊어진 도시에서 일어나는 살육을 구태의연하게 자행하는 행위의 주체인 ‘폭력단’은 ‘마차말’로 비유된다. ‘폭력단’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비가 없으므로 ‘人肉인육’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시의 화자는 폭력적 장면을 그려내며 ‘너’에게 그러한 장면을 보도록 촉구한다. 시의 화자는 비대면의 대상이 각성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어투에는 잔인한 장면에서 무감각해진 비대면의 대상들이 공동체적인 장소감을 갖기를 바라는 소망이 내재되어 있다.

시의 화자는 혐오스러운 도시의 상태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타락한 도시는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불안한 장소가 되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시의 화자는 ‘장안’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육人肉’을 운반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이 태연한 ‘폭력단’의 행태를 떠올리고 있다. 도시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변질되었으며 장소혐오와 일치되는 공간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장소감을 갖고 있던 ‘너’에게 무장소성을 유발하는 장소로 변질된다. 이 시에는 장소감을 갖고 있는 시의 화자와 무장소성을 갖고 있는 ‘너’가 변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폭력단’은 무장소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전당포에 고물상이 지저분한 늘어선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는 않았다. 조금 높다란 포도鋪道도 깔리우지는 않았다. 조금 말쑥한 집과 조금 허름한 집은 모조리 층층하여서 바짝바짝 친밀하게는 늘어서 있다. 구멍 뚫린 속내의를 팔러 온 사람, 구멍 뚫린 속내의를 사러 온 사람, 층층한 길목으로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선 차차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비단내음새를 풍기어가며 가느른 어깨를 흔들거렸다.

- <고전古典>

장소는 구성원에 따라 장소감이 달라진다. 도시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한다. ‘전당포’와 ‘고물상’,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골목은 포도보다 낮게 위치해 있다. 전당포와 고물상이 늘어선 곳에 ‘말쑥한 집’과 ‘허름한 집’이 ‘바짝바짝’ 늘어선 모습을 ‘친밀하게’ 늘어섰다고 표현하고 있다. 좁은 간격으로 늘어선 못해 ‘층층’이 쌓아 놓은 형상으로 모여 있는 집들은 공색한 살림을 보여주고 있다. ‘전당포와 고물상’, 좁은 간격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백화점이나 고가의 물건이 진행된 신문물의 도시와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다. 활기나 생동감보다는 가난과 우울함이 지배적인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이다. 이 시의 배경은 도시의 뒷골목이다. 이 시의 주된 소재는 장소와 장소에 대한 장소감이다.

이 시의 장소에는 ‘구멍 뚫린 속내의’를 팔러온 사람과 사러온 사람이 공존하며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과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공존한다. 오래되어 낡고 신문물에 밀려나 부패해가는 도시의 뒷골목의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물들은 오히려 친밀하게 장소감을 유지하고 있다. 타인의 개입이 없이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골목은 동질감으로 뭉쳐져 장소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다. 시의 화자는 그러한 도시의 상태를 기술하고 ‘고전古典’이라 명시한다. 그것은 한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장소혐오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며 장소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잔존하는 도시 뒷골목의 형태가 지닌 장소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4.2. 장소혐오의 대상, ‘서울’

앞에서 밝혔듯 오장환의 시에는 여러 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대한 혐오감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장소 혐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가 된다. 장소에의 대상이었던 장소가 내부 혹은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 침해받고 변질되는 경우, 경험 주체는 변질된 장소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된다. 장소에 대한 진정한 뿌리내림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장소 상실 또는 무장소성이다. 장소감은 개인에게 정체성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다. 일정한 장소에 대해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장소감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소감 상실은 경험 주체가 실존 장소에 대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타인의 의지로 인해 파괴 혹은 손실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며 경험 주체가 애착의 장소로 회귀하려 희망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리움의 장소로 남게 된다면 그 또한 장소 상실로 이어진다.

8월 15일 밤에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너희들은 다 같은 기쁨에  
내가 운 줄 알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 천황의 방송도,  
기쁨에 넘치는 소문도.  
내게는 끝이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든 탕아로  
홀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하였다.

그러나 하루아침 자고 깨니  
이것은 너무나 가슴을 터치는 사실이었다.  
기쁘다는 말,  
에이 소용도 없는 말이다.  
그저 울면서 두 주먹을 부르쥐고  
나는 병원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어째서 날마다 뛰쳐나간 것이냐.

큰 거리에는  
네거리에는, 누가 있느냐.  
싱싱한 사람 굳건한 청년, 씩씩한 웃음이 있는 줄 알았다.  
아, 저마다 손에 손에 깃발을 날리며  
노래조차 없는 군중이 만세로 노래를 부르며  
이것도 하루아침의 가벼운 흥분이라면……  
병든 서울아, 나는 보았다.  
언제나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너의 거리마다  
오늘은 더욱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나는 사람에게  
호기 있어 먼지를 씌워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 무슨 당의 자동차.

그렇다. 병든 서울아,  
지난날에 네가, 이 잡놈 저 잡놈  
모두 다 술 취한 놈들과 밤늦도록 어깨동무를 하다시피  
아 다정한 서울아  
나도 밀천을 털고 보면 그런 놈 중의 하나이다.  
나라 없는 원통함에  
에이, 나라 없는 우리들 청춘의 반항은 이러한 것이었다.  
반항이여! 반항이여! 이 얼마나 눈물 나게 신명 나는 일이나.  
아름다운 서울, 사랑한 그리고 정들은 나의 서울아  
나는 조금씩 병원 문에서 뛰어 나온다.  
포장 친 음식점, 다 썩은 구루마에 차려 놓은 술장수  
사뭇 돼지구옹같이 늘어선  
끝끝내 더러운 거릴지라도  
아, 나의 뼈와 살은 이곳에서 끊어졌다.

병든 서울, 아름다운,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나의 서울아  
네 품에 아무리 춤추는 바보와 술 취한 망종이 다시 끊어도  
나는 또 보았다.  
우리들 인민의 이름으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려 힘쓰는 이들을……  
그리고 나는 외친다.  
우리 모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네 인민의 공통된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냐.  
아,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

8월 15일, 9월 15일.

아니, 삼백예순날

나는 죽기가 싫다고 몸부림치면서 울겠다.

너희들은 모두 다 내가

시골구석에서 자식 땀에 아주 상해 버린 홀어머니만을 위하여 우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나는 보고 싶다.

큰물이 지나간 서울의 하늘이……

그때는 맑게 개인 하늘에

젊은이의 그리는 씩씩한 꿈들이 흰 구름처럼 떠도는 것을……

아름다운 서울, 사무치는. 그리고 자랑스런 나의 서울아,

나라 없이 자라난 서른 해

나는 고향까지 없었다.

그리고 내가 길거리에서 자빠져 죽는 날.

‘그곳은 넓은 하늘과 푸른 솔밭이나 잔디 한 뼨도 없는’

너의 가장 변화한 거리

종로의 뒷골목 썩은 냄새 나는 선술집 문턱으로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처럼 살았다.

그리고 나의 반항은 잠시 끝났다.

아 그동안 슬픔에 울기만 하여 이냥 질척거리는 내 눈

아 그동안 독한 술과 끝없는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내 쓸개.

내 눈깔을 뽑아 버리랴, 내 쓸개를 잡아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

— <병든 서울>

장소혐오(topophobia)는 일정한 장소가 공포나 불안의 형태로 상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램프는 장소 경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추려내고자 했다.<sup>25)</sup> 삶 속에 각인된 장소는 그리움이

25) Edward Ralph, 위의 책, 299-324면.

나 애착을 불러일으키기도 곳도 있지만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곳도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하듯 장소에 대한 양면적 특성은 인간의 삶 속에 개입되어 있다.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장소의 특성도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도시’라는 공간이 주는 장소성은 ‘시골’이 갖는 장소성과 구별된다. 도시에 소속된 거주자 역시 지방성과는 다른 도시성을 갖는다. 도시에 소속된 거주자는 좋은 몸가짐, 교양, 시민적 사고형태, 도덕적 행동, 자유, 계몽된 정신태도,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과 정치적 참여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은 인간관과 동일시된다. 도시성의 개념은 지방성의 반대로 구별되고 야만성에도 반대로 분류된다.<sup>26)</sup> 그러나 오늘날 도시의 형태는 야만성을 포함한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서울은 타 세력에 의해 근대화된 도시로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복을 맞았다. 그로 인해 시의 화자에게 친밀한 장소였던 ‘서울’은 폭력성과 야만성이라는 장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의 화자는 환자로 가득한 ‘병원’에서 뛰쳐나갔지만 광복을 맞이한 ‘서울’도 ‘병든 서울’로 야만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다. 이 시의 배경인 ‘서울’은 1930년대에 형성된 장소지만 오늘날 ‘도시’와 다름없이 야만의 장소로 변질된 ‘서울’이라는 도시가 든 ‘병’은 당파이다. 서로 결속되지 못하고 동질감이 없는 군중은 야만성의 ‘병’에 시달리는 존재들이다. ‘병원’의 의미는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각종 질병과 환자들이 군집해 있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서울은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과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이질적이지만 공동의 병을 앓는다. ‘서울’은 의인화되었다. ‘서울’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소식에 시의 화자는 ‘너희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 ‘너희들’이 단순히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과 다르게 시의 화자는 ‘가슴을 터치는’ 감정에 휩싸인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 안타까움에 가까운 감정이다. 그러한 감정은 ‘싱싱한 사람 굳건한 청년, 씩씩한 웃음’이 있는 줄 알았다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 만세를 부르는 군중은 ‘노래조차 없는 군중’이다. 노래를 하

26) Markus Schtoer,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에코리브르, 2010, 258-259면.

지 않는 군중은 진정한 기쁨에 들뜬 군중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군중이다. 그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하루아침’의 짧은 기쁨이고 해방된 서울은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장소이다. 더럽혀진 거리에는 ‘짐승보다 더러운 짐사’를 지닌 ‘장사치’들이 날뛰고 있다. 그들은 ‘무슨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다. 도시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이고 이방인의 만남은 실패한 만남이다. 도시는 냉정하고 야만적인 무관심의 공동체이다. 도시의 이질성과 야만성의 원인은 권력의 개입에 있다. 도시를 제도하고 발전시켰으나 무력화된 권력의 행사는 도시를 야만성의 ‘병’에 들게 만들었다. ‘서울’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든 병의 증세는 타락과 자기 환멸이다.

의인화된 ‘서울’은 ‘이 잡놈 저 잡놈’과 어울려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다. 시의 화자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존재라고 지칭하고 있다. ‘잡놈’이라는 호칭은 존재감이나 정체성이 없는 존재를 의미하며 의미 없이 행동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잡놈들과 어울린 의인화된 ‘서울’은 정체성이 없는 장소이다. 또 ‘서울’의 구성원인 시의 화자도 정체성이 없는 ‘그런 놈’ 중 하나라고 자책감을 갖는다. 그러나 곧 자책의 원인을 밝히며 그것이 ‘나라 없는 원통함’ 때문이라고 밝힌다. 또 나라 잃음에 대한 ‘반항’을 ‘신명나는 일’이라고 자위한다. ‘서울’이라는 장소를 짐승보다 더러운 당파에 몰든 ‘병원’이라고 칭하며 장소 혐오를 보인 시의 정서는 ‘반항’을 계기로 장소애로 전환된다. 시의 화자는 ‘병원 문’에서 뛰어 나오며 ‘돼지 구웁’과 같이 더러운 거리일지라도 ‘뼈와 살’이 끊어진 장소임을 상기한다. 시의 화자가 ‘돼지 구웁’과 같은 도시의 거리에서 갖게 된 것은 ‘서울’이라는 장소 혐오와 자기 환멸이다. 그러나 이 시의 장소 혐오는 무장소성이나 비장소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장소애로 환원한다. ‘서울’은 ‘뼈와 살’이 끊어진 성장의 장소이기도 하고 시의 화자가 ‘서울’이 앓고 있는 타락과 오염의 상징인 ‘병’이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치유되어 ‘씩씩한 새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화자는 서울에 대한 애정을 ‘아름다운’ 또 ‘미칠 것 같은’ 곳이라고

표현한다. ‘춤추는 바보’와 ‘술 취한 망중’이 끊어도 변치 않을 애정을 다짐한다. 반어적인 어투의 애정표현에는 애증의 양면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한편 열렬한 애정에 대한 이유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것은 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밝힌다.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서울’의 조건이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백 예순 날’을 울겠다고 공포한다. 우는 행위는 ‘인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서울’을 위한 것이며 성의를 다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시의 화자는 ‘서울’이 더러운 것을 씻어낼 ‘큰 물’이 지나간 후 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큰 물’은 아름다운 ‘서울’을 오염시킨 ‘장사치’와 ‘무슨 당’을 정화하는 물리적인 힘의 행위를 상징한다.

‘서울’은 애증의 감정이 교차하는 도시이다. 과거에 시의 화자는 ‘서울’을 ‘뒷골목’ 또는 ‘선술집 문턱’과 동일시했다. 시의 화자에게 더럽혀진 ‘서울’이라는 장소는 애정이 남지 않는 환멸의 장소였다. 그러나 해방으로 인해 절망의 장소는 희망을 품게하는 장소로 전환된다. 그래서 ‘사무치는’과 ‘자랑스런’ 감정이 교차하는 장소이다. 시의 화자는 ‘서울’에 대한 ‘사무치는’ 감정으로 인해 ‘슬픔에 울기만’ 했고 그러한 슬픔으로 ‘독한 술’과 ‘절망에 문드러진’ 쓸개를 갖게 되었다. 시의 화자는 ‘서울’에 대한 절망에 대해 후회하고 희망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눈깔’을 뽑고 ‘쓸개’를 팽개치는 행위로 표현한다.

시의 화자는 야만성에 길들여진 도시가 혐오감이 없는 장소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서울’에 남기를 소망한다. 그것은 장소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장소가 타락하고 변모되었는데도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서울’과 시의 화자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병든 자신과 마찬가지로 병에 시달리는 도시의 상태에 대한 연민은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병든 서울’의 회복을 희망하는 것 또한 자신의 회복을 바라는 자아의 소망과 연결된다. 이 시에서 ‘서울’과 시의 화자가 동질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병’이라는 절망적 상황이다. 또는 자의든 타의든 절망이라는 병에 찌든 ‘서울’이라는 장소에 장소애를 갖는 것도 그러한 동질감 때문이다. 이 시에서 동질감은 장소감과 연결되고 그것은 다시 장소애와 연결되는 요소가 된다.

## 5. 결론

1930년대 근대의 주체들이 겪었던 친밀한 장소의 변질은 극심한 고통을 야기했다. 그들은 근대 도시의 특징인 야만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근원적 장소를 그리워했다. 그러한 심리적 양상은 그리움과 혐오라는 양가적 감정을 양산했다. 오장환의 시에는 식민치하 이전의 고향과 변해가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한다. 경계에 선 삶을 표현한 오장환의 시는 장소에 대한 장소혐오와 장소애의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오장환 시에 나타난 장소성의 특징은 먼저 시 속에 표출된 개인적 정서의 흐름이 장소와 동일시되어 형상화되었다. 둘째, 식민치하의 주체들이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과 익숙한 장소를 상실한 경험은 장소의 상실로 표출되었고 상실로 인한 고통이 형상화되었다. 셋째, ‘병든 서울’을 비롯한 여러 시에 장소혐오와 장소애의 양가적 감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오장환 시에 나타난 장소 변형은 외부세력에 의해 자본화되는 식민지 주체의 심리를 표출하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는 체험과 기억의 혼재는 근원적인 장소를 상실한 삶의 편린이다. 오장환의 시에는 개인적 정서의 흐름과 사상에 대한 갈등, 또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모두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 중 특히 오장환의 시에 장소와 연관된 정서의 흐름과 갈등의 양상을 세밀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고 심리적 기제를 읽어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오장환의 시 외에 장시 <수부>나 시집 『붉은 기』에 수록된 시들도 장소감을 연구하는 적절한 텍스트라고 보며 미흡한 부분은 다음 연구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오장환, 김학동 편, 『오장환전집』, 국학자료원, 2003.

### 2. 단행본 및 논문

- 김동석, 『탁류의 음악-오장환론』, 『김동석 평론집』, 서음출판사, 1989.
- 김광균, 『오장환 시집 『헌사』』, 김학동 편,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 김기림, 『『성벽』을 읽고』, 《조선일보》, 1937. 9. 18일자.
- 김기림, 『『성벽』을 읽고-오장환씨의 시집』,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 김민숙, 『백식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비평문학』 46호, 2011.
- 김영란, 『오장환 시 연구』, 경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용직, 『열정과 행동-오장환론』,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은정, 『오장환 시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재용, 『오장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2.
-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동국대 한국문학 연구소 편, 역락, 2008.
- 김학동, 『오장환 시 연구』, 시문학사, 1990.
- \_\_\_\_\_,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 김희경, 『오장환 시의 공간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31집, 2008.
- \_\_\_\_\_, 『오장환 시 연구-시의식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09.
- 도종환, 『오장환 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6.
- 민태규, 『시집 『헌사』를 읽고』, 김학동 편,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 박현수, 『오장환의 장시 ‘전쟁’연구 1』, 『세종어문연구』 10집, 세종어문학회, 1997.
- \_\_\_\_\_, 『오장환의 장시 ‘전쟁’연구 2』, 『세종어문연구』 11집, 세종어문학회, 1998.

-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 백수인, 「오장환 시의 공간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31집, 1991.
- \_\_\_\_\_, 『오장환 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4.
- 서정주, 『서정주 문학전집』 5권, 일지사, 1972.
- 성기각, 「오장환 시에 나타난 고향의 문제」, 『경남어문논집』 3집, 경남대, 1990.
- 송명희, 「이상화 시의 장소와 장소상실」, 『한국시학연구』 23호, 2008.
- 신성환, 「인문지리학의 시선에서 본 새로운 도시 인식과 상상력」-장소성의 훼손에 대한 최근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5집, 2010.
- 이봉구, 「성벽시절의 장환」,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2.
- 이상옥, 『오장환 시 연구-담화체계를 중심으로』,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3.
- 이필규, 『오장환 시의 변모과정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혜원, 「김소월의 장소의 시학」,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 전종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 최두석,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 전집 2』, 창작과 비평사, 1989.
- \_\_\_\_\_, 『오장환 전집 1』, 창작과 비평사, 1997.
- \_\_\_\_\_, 『오장환 전집 2』, 창작과 비평사, 1999.
- 최만중, 「김소월 시에 있어서 ‘장소에’의 현상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1.
- 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부산대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2007.
- \_\_\_\_\_, 『인문지리학 개론』, 한울, 2008.
- Edward Ra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성』, 논형, 2005.
- Hidegger, *An ontological consieration of place,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58.

Markus Schtoer,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편, 에코리브르, 2010.

Otto. F. Bollow, 백승균 역, 『삶의 철학』, 경문사, 1979.

Yi-Fu Tuan,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9.

【Abstracts】

## A Study on the Place-ness of Oh Jang Hwan's Poetry

Yoon Su-ha

The anthropo-geography which is being actively conducted has its significance as the criticism and alternative of modern social theory. A place is the spot where a relationships with others is formed and the base where men live their lives. In addition, it also forms the conditions of existence and imprints meaning. A place is formed as a meaning limited to the subjects that have certain experiences in life. A deep meaning may be obtained through long-term and steady emotional exchang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elings about a place, including topophilia and topophobia that are felt through a particular place in Oh Jang Hwan's poetry. First, the theory of space and place-ness was reviewed to look into the aspects of topophilia and topophobia in Oh Jang Hwan's poetry. The subject of topophilia in Oh Jang Hwan's poetry is the archetypal space that calls in the sense of security to home. The place-lessness appearing in Oh Jang Hwan's poetry may be found in the poems such as <Hyangsoo> or <Bukbangeui Gil>. The area where Oh Jang Hwan's poetry assumes different aspects from other poetry applying the theory of place-ness is that the poems that have disgust for a place can be found. This study explored the dark side and savagery of the city appearing in Oh Jang Hwan's poetry by considering a 'city' as the subject for which topophobia is felt. Of the works of many poets who worked in the 1930s, Oh Jang Hwan's poetry particularly assumes the

aspect of various transformations. In addition to the poems by Oh Jang Hwan cited in this study, the poems like <Sooboo>, a long poem, and 『Bulgeun-gi』, a collection of poems, are considered as the texts that are appropriate to study place-ness, and the study for the insufficiently investigated parts will be deferred until the next study.

Key words: space, place, identity of place, topophilia, topophobia.

이 논문은 2016년 6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